

“비정규직까지 포함하겠다” ‘통합노조’, ‘복수노조’ 체제 선언

최명규 기자 gyumyeong@knu.ac.kr

통합노동조합(노조)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학원운영의 민주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우리학교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조로 지난 10월 11일에 발족했다. ‘통합노조 준비 위원회’는 지난 발족식에서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하는 새 노조 결성’을 결의했다. 지난 2일까지 통합노조가 자회사인 k에코텍 직원 약 80여 명을 포함한 조합원 129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노조가 실질적인 협상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청인 경희대학교의 직원 중 최소 10%가 가입되어 있어야 단체 교섭 위원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노조는 오는 13일 민노총 산하 전국 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할 예정이다. 통합노조 준비 위원회 박경규 공동준비위원장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소속된 산별노조는 그 연대 규모가 매우 크다”며 “노동자가 큰 조직으로 단결한다면 학교와의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총장 선출 개선 지향

박 위원장은 “끊임없이 여러 직종을 만나는 학교는 이들 간의 차별대우를 통해

노동자를 분열시켰다. 지난 20여 년 간 노동자가 분열하는 사이 정규직이던 환경, 관리, 기술 기능직은 대부분 외부용역화되고, 사무직조차 50%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며 “이는 전체적인 노동자의 힘 약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조 설립취지문에 따르면 통합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총장선출 개선’을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선정했다.

통합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학교에 요구한다. 통합노조 층은 “인문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직원이 값싼 임금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노동유연성이 필요한 곳에서 비정규직을 최소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교직원의 가치를 다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어서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희대 소속으로 집계된 직원은 모두 903명이다. 이 중 계약직 395명과 파견직 68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직원의 수는 463명으로 전체 직원의 51%이다.

또한 통합노조는 이사회 내에서만 결정되는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노조 층은 “경희학원 설립자인 조영식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된 1955

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설립자 부자가 총장을 역임한 기간은 47년 8개월”이라며 “학교가 세워진 이후 3/4의 기간 동안 설립자와 그 아들들이 공공기관인 대학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로 군림해 왔다”고 주장했다. 우리학교 교훈인 ‘사상의 민주화, 학원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와 창학 이념이 봉건적 세습총장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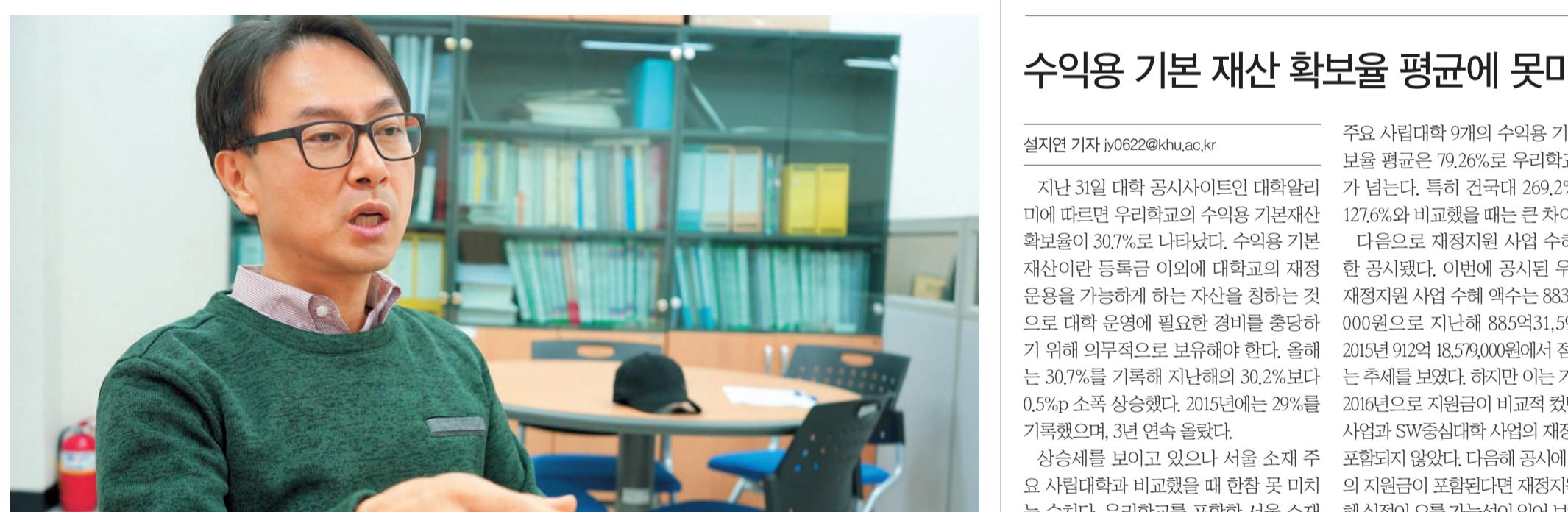
경희학원 전체 노동자로

노조 확장해 나갈 것

박 위원장은 “학교의 주인이 구성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민주적 총장 선출’과 ‘구성원의 범인 이사선임 동의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어서 “대학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직원이 학생, 교원과 함께 학원 운영의 3주체 중 하나로서 정당한 자리를 잡고 비정규직과 차별받는 노동자가 없는 대학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수노조에 대해 박 위원장은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상호간 협력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학교법인과 대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통합노조는 경희학원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하는 만큼 가까워진다!
대인관계 이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인관계 집단상담이란?>

친구, 연인, 가족 등의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대인관계 안에서의 나의 욕구와 상호작용을 면밀히 이해할수록 더욱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시 / 장소 / 인원 / 신청방법

일시 : 2017.11.10~12.8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 중앙도서관 2층 세미나실1(전자정보실과 대접 사이)
인원 : 8명 이내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02-961-0207)
*운영시간 9시~5시(점심시간 12시~1시)

★ *반드시 모든 과정(5회)을 출석할 수 있는 학생만 신청하세요
*프로그램 이용은 *무료*입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내 삶의 주인 되기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이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들으며 내 생각과 비교 검토도 해보고 자신의 대한 피드백도 들어보며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자아성장 집단상담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 깊은 감정은 무엇인지 알아가고 개방 수용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와 감정에 대한 이해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2017.11.10 ~ 2017.12.8 매주 금요일, 총 5회
오후 3:00 ~ 5:20

중앙도서관 2층 세미나실1 (매점 옆)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최대 8명 (선착순 접수)
*반드시 모든 과정(5회)을 출석할 수 있는 학생만 신청하세요
*프로그램 이용은 *무료*입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탄력근로제 ‘불만’ 누적 노동조합, “개선안 요구할 것”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대학본부가 9월 15일부터 ‘탄력근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1주의 근로시간 중에서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 쉬는 것이다.

탄력근로제가 시행되기 전 직원들은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면 추가근로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부서별로 주어진 근근수당을 소진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가 적용된다. 추가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로를 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시간외근로를 한 시간 만큼 쉴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월요일에 시간외근로를 2시간 했을 경우, 다음 주 화요일이 돌아오기 전까

지 근로시간 중에 2시간을 늦게 출근하거나,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의명의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근이 불가피한 부서들은 실질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기 어려워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야근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인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의 업무가 고스란히 다음 야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이나 설비 관련 직종은 주말 근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종현 노조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난 뒤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서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1월 협상 때 이러한 부서들에 대해 수당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개선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11월 단체협약에서 타결된 ‘통상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시행된 것이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제 18대 송혜경 전 노조위원장은 “올해 3월 통상임금제의 도입으로 부서별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예산이 빨리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며 탄력근로제의 도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송 전 노조위원장은 “작년 통상임금을 요구할 때 본부가 예산적인 부담이 있다고 말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 17대 장백기 전 노조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 재원이 없기 때문인데, 학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지우려 한다”고 말했다. 제 15대 김종원 전 노조위원장은 “대학의 행정업무는 9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게 되면 공백시간을 채울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학생과 교원도 불편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종현 노조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시간외근로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적정인원을 더 채용하거나 행정적인 효율을 갖춰야 한다”며 2018학년도에는 달라진 제도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평균에 못미쳐

설지연 기자 jy0622@knu.ac.kr

주요 사립대학 9개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균은 79.26%로 우리학교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건국대 269.2%, 연세대 127.6%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 또한 공시됐다. 이번에 공시된 우리학교의 재정지원 사업 수혜 액수는 883억 46,067,000원으로 지난해 885억 31,594,000원, 2015년 912억 18,579,000원에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기준년도가 2016년으로 지원금이 비교적 커던 LINC+ 사업과 SW중심대학 사업의 재정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해 공시에 이 사업들의 지원금이 포함된다면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평균에 못미쳐